



◇'책읽기 좋아하는 할머니'



◇'바람이 불었어'

# 황금 들녘, 가을 책 여행 떠나보자

## 어떤 책 읽을까

은혜나무 잎들이 하루하루 색을 바꿉니다. 맛깔스런 공기, 풍성한 들판의 내용, 밤송이들의 탐스러움, 코스모스들의 너울거림... 이 가을에 올 또 한 가지 축복은 멋진 책들과의 만남이지요. 고즈넉한 마음으로 가을 책 나들이 길을 떠나봅니다.

울긋불긋 물든 나무, 푸른 하늘, 잘 익은 머루. 깊어 가는 가을 산 속에 아기 곰이 보입니다. 알알이 열린 머루로 고픈 배를 채운 뒤에는 큰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지요. 목관화로 표현한 가을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아기곰의 가을 나들이' (보림). 엄마와 함께 절기와 세상을 배우지요. 엄마 곰이 부드러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연어를 물어오면 아기 곰도 달빛 어린 강물 속에서 엄마처럼 조심조심 연어를 잡을 거랍니다.

가을과 함께 길을 걷다가 잠시 바람도 만납니다. 바람에 나뭇잎들이 흩날리고 나무도 기우뚱 흔들려요.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 운율이 담긴 글귀들과 둥근 곡선의 그림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바람이 불었어' (시공주니어). 바람이 불어서 마음 설레는 날 풍선을 들고 동네를 노니는 우리 꼬마들. 가을 바람을 조심하세요. 바람이 장난 걸지 모르거든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책을 읽으며 살고 싶어 시골로 이사오신 '책읽기 좋아하는 할머니' (파랑새어린이)도 만납니다. 할 일이 많은 시골 집에서 온갖 동물들과 함께 바빠 한 해를 보낸 할머니는 이제야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단하여 졸음에 빠지더라도, 행복한 시간임니

에 내놓는 것까지 아가지기한 삶과 생명의 변주에 가슴에서 신선한 즐거움이 솟아오릅니다.

이제, 어딘가 한 굽이에서 쉬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오래 되어도 빛이 바래지 않는 우리 명작들이 이 시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심리 묘사, 탄탄한 구성, 빛나는 문체의 명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 그리고 제 삶에 기초한 글을 써야 함을 일러주시는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하는 이 모든 현상들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습니다.

이제 곧, 산이 색깔 옷을 입겠지요. 이 가을의 향기를 맡으면서, 울림을 남기는 책의 여운을 마음에 새기면

서, 우리 아이들도 조금은 생각을 키울 겁니다. 이제 조금씩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오랜 소망으로 남을 만한 가을 책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경·월간 열린어린이(www.openkidzine.co.kr) 편집인



◇'아기곰의 가을 나들이'

## '아기곰의 가을...' '책읽기 좋아하는 할머니' 등

### 상큼한 가을 들녘 같은 그림·색깔 꿈의 세계로

다. 그림에서 오래된 책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 느낌, 푸른빛 도는 책갈피 안에서 자연과 사람과 책이 가만히 하나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책 나들이에서는,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곤충들도 만날 수 있지요. 이 가을, 곤충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소중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수컷 반딧불이는 밝은 빛으로 암컷을 유혹하고, 푸른부전나비 수컷은 고운 빛깔의 날개를 팔랑 팔랑이며 암컷에게 날아갑니다. 잠자리의 날개 무늬, 사마귀 다리의 작은 가지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그린 '세밀화로 보는 곤충의 생활' (길벗어린이)에서 환경과 어울려 살아가는 곤충들의 모습을 만납니다. 자연이 우리 앞

작들을 모은 현덕의 '집을 나간 소년' (숲속나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온 이 땅의 아이들 마음을 헤아린 어린이 문학의 고전입니다. 소설 읽기를 준비하는 섬들이 되어줄 책이지요. 마침내 소금을 뿌린 듯 흐릿한 달빛 속에서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메밀꽃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도 '메밀꽃 필 무렵' (다림)에서 처럼 자연의 품에 안겨 아련한 사랑의 기억을 반추해 볼까요?

다시 일어나 걷는 순간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 소리가 들려오네요. 아, 여기 '개구리 울던 마을' (창작과비평사)까지 왔나 봅니다. 지난 여름 즐거이 흠뻑 돌아간 이오덕 선생이 자연과 교육과 문학, 그리고 진실을 노래했던 개구리 울던 마을입니다.

# 캐나다 공립학교 체험 프로그램 인기

## 위니펙 3개 교육청 운영

학기 중 캐나다 공립학교에 들어가 8주 동안 현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업하는 공립학교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 지역 3개 교육청은 국내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지 공립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니펙 지역 교육청이 국내에서 선발된 참가 학생들을 불러 8주 동안 홈스테이와 공립학교를 배정,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학교 및 가정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위니펙 3개 교육청이 토론토나 밴쿠버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지역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학생을 한 반에 한 명만 배치해 현지 학교생활과 문화를 단기간에 익히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특징.

참가 학생이 숙식하는 홈스테이도 같은 반 친구의 가정 중 교육청이 직접 골라 배정해주는 덕분에 현지 중산층 가정의 생활과 문화를 좀더 알차고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현지 학교생활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초등학교 수업은 우리의 대학처럼 과목별로 교실을 옮겨다니며 진행되고, 특



◇캐나다 위니펙의 펠디나 교육청 산하 레이드로 초등학교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생이 급우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초등 3년생~중2 대상  
8주 동안 현지서 생활  
2일·4일 설명회 마련

히 중학생의 경우 방과 후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특별활동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영어 공부 외에도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특히 위니펙 지역은 캐나다에서 상대적으로 한인들이 덜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거의 100% 영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고의 영어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현

지 교육청의 설명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현재 다니고 있는 국내 학교에 현장 학습 신청을 하면 최대 8주까지 결석 처리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 참가 학생 선발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에듀조션은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10월 초 서울 강남과 강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강남 설명회=10월 2일(목) 오후 2시, 에듀조션 어학센터, 예약 문의 02-533-3999 ▲강서 설명회=10월 4일(토) 오후 2시, 현대백화점 목동점, 예약 문의 02-2653-2322 /박중현기자 jhpark@chosun.com

17년 전통 전문인글 학습지는 다릅니다  
www.doobaero.com

두배로

# 유전자 검사부터 차근차근

우리 아이 학습 시작, 무료 유전자검사부터~!

유전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개인이 타고난 학습 성향에 꼭 맞는 방법으로 지도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공부하세요!

두배로한글

17년 노하우로 만든 두배로 한글! 목돈없이 월회비만 내세요!

**두배로 10월 이벤트**

- 입회비 면제
  - 회원 가입시 입회비 면제
- 10월에 가입하면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 신규 가입 회원 : 유전자검사 무료 실시
  - 재 가입 및 과목을 추가하는 회원 : 단행본 증정

두배로한글 | 국어 | 수학 | 영어 | 서당 · 한자

무료상담전화 080-913-5100/1 (02)3284-0500

아닌이와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두식회사 영교